



'캐스퍼' 1호차 출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형 SUV '캐스퍼' 양산1호차 생산기념행사가 15일 오전 광산구 덕림동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광태 GGM사장 등 참석자들이 1호차의 출시를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쌍생 1호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양산 체제 가동 문 대통령 "힘찬 질주 응원"

대한민국 1호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1호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9면〉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광주를 두 차례나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GGM 신차인 캐스퍼를 직접 구매예약한 데 이어 이날 축사를 통해 GGM의 힘찬 질주를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GGM 조립공장에서 열린 1호차 생산기념 행사에서 임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서면축사를 통해 "2019년 1월 사회적 대화협약부터 신차 출시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이뤄낸 일"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캐스퍼는 광주시민과 노사,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자동차"라며 "광주는 쌍생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포용과 나눔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간접고용까지 모두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고용 창출이 본격화되면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도 캐스퍼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도 한 대 예약했는데, 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 큰 관심을 불러온 것"이라며 "나눔이 협력으로 이어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순환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GGM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가 확실하게 정착해야 하고, GGM은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노동자이고 모두가 사용자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함께 노사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양산 1호차는 현대차의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캐스퍼로, 올해는 연 말까지 1만2000대, 연간 7만대 규모로 생산될 예정이다. 인터넷 예약 판매 첫날인 지난 14일에만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역대 가장 많은 1만9000대의 사전 계약을 달성하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차체 설비와 조립 설비를 100% 국산화에 다양한 차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현재까지 고용한 인원 505명 중 93%인 470명이 지역인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민심 잡아라”... 후보들 호남 경선 올인

25·26일 호남 경선 ...민주당 대선 후보 사실상 결정할 '풍향계' 이재명 광주서 '호남 선언'·이낙연 무등산 등반 ... 오늘 TV토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호남 대전'에 올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호남 선언'을 발표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19일 무등산 등반 등을 통해 '뒀발'에서 반전의 토대를 준비하고 있다. 호남지역에는 권리당원만 20만명 이상이 포진하고 있고, 전국에 호남 출신 당원 수도 많아 '호남 표심'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16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6개 방송사의 합동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열린캠프 소속 의원단은 오는 17일 광주 '총 집결'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전북 각지에 흩어져 지

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정성호·유원식·조정식 등 핵심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광주 일정을 시작하며 '호남 표심잡기' 행보에 나섰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열린캠프 의원단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지역에서 총 집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지금까지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캠프 의원단은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강당에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뒤 호남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유권자들에게 이 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앞서 정성호 단장은 지난 11일 말바우 시장 상

인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관단체 간담회, 식자재협동조합 및 자동차부품 협동조합 간담회, 광주 4개 구청장 접견 등 광주 일정을 소화했다. 유원식 선대위원장도 지난 13-14일 광주 방문 일정을 통해 5·18 유족 및 부상자, 여성경제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정식 총괄본부장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언론인, 마을활동가, 문화예술인 등과 지지 선언을 함께 하는 등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당부대로 이번 호남 경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세균 후보의 사퇴 등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진정성을 갖고 이 후보의 성과와 장점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16일 방송사 합동 TV 토론회 일정에 맞춰 광주를 찾고, 오는 19일 무등산을 오

르며 지역민과 만남을 갖는다. 현재 이 전 대표 측은 대규모 결집 보다는 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하방' 방식으로 호남 표심을 다질 계획이다. 앞서 호남 공약과 의원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 '호남 대전'에서는 규모 보다는 지역 민심을 직접 만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 한 관계자는 "호남에서 추격과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형식 보다는 내용을 채울 것이며, 호남 현직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을 맡아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오후 5시 30분-7시까지 광주MBC 공개홀에서 KBS광주, KBS전주, 광주MBC, 전주MBC, KBC광주방송, JTV전주방송 등 6개 방송사가 공동 진행하는 합동 TV 토론에서는 지역 현안과 청년 문제 등을 주제로 후보간 열띤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신 해양·관광·환경 수도로”

전남도, 32개 핵심과제 발굴 ... 대선 공약 반영 총력

전남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태평 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전남 발전을 위한 32개 정책과제를 발굴, 대선 공약 반영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열쇳말로 한 8대 추진전략, 3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이은 국가 3대 축으로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건설과 함께 광주, 경주, 부산, 울산에 있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전남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과제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 그린수소 에너지 섬, 인공 태양광연구소 등 4개 과제 ▲2050 탄소중립 실

현을 위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남해안 탄소소재벨트 구축 등 3개 과제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전라남도 국립과대대학 신설, 첨단의료 복합단지, 무안공항 연계 의료특화단지 구축 등 3개 과제도 채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행복한이웃, 전남사랑도민증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등록기준지(원적 포함)를 전라남도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주소가 전라남도 이외인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신청방법 전라남도청 누리집 신청(온라인) 및 우편 신청
* 문의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출향도민지원T/F팀 (☎061-286-7791~3)

혜택사항 전라남도내 협약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 또는 무료
* 전라남도청 누리집(전남사랑도민증 게시판)에 게재

검색창에